

7/31/22

설교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5 장 19-29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절관주** 요 8:49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절관주** 행 17:28

(요 5: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절관주** 고전 15:52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 년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당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에 대해 피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안식일에 38 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트집삼아 박해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공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요 5: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5: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 말씀하셨듯이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8 년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장 10 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친구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나 가족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친구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를 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38년된 병자의 고침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인 자신도 당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넘어 예수님 당신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고(막 5:35-43)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으며(눅 7:12-15)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요 11:39-44).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당신도 원하는 자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선택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 오직 38 년 된 병자만을 찾아가 살려 주셨습니다.

죽어 무덤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 오직 나사로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당신이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람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기 원하는 자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가진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 당신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당신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한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사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권한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께 맡기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아들인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을 모독한 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공경없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순종의 연합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당신에게 생명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를 본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존재로부터 생명이 있는 존재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이 살아 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반면 사망 가운데 살던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자는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 상태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 연유를 말씀하십니다.

(요 5: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자됨이란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는 하늘에서 상호 행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들 예수가 이땅에 인간으로 내려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기까지 당신과의 계약을 지킨 그 아들 예수에게 이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기까지 이 계약을 신실하게 지켰고 이에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으며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아가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선한 일을 한 자'는 예수를 믿은 자, '악한 일을 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분류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의 자격에 대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7: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 7: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 7: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최후 심판의 때는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 엘리야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승천한 예외의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을 일차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인간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후 모두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백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을 것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차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이차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시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하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 갑시다!